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된 계층에 의료봉사 진행할 것”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다문화 가정에 구강검진·스케일링 등 치과진료 진행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3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상아회’ 회원들과 함께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웃사촌방에서 다문화 50가정 67명에게 구강검진, 발치, 충치치료,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시다문화지원센터의 대상자 연계를 통해 전주지역 이주여성 가족 및 독거어르신을 선정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상아회 김정민 회장은 “봉사활동 대상자 및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셔서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욱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지역의 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조해 지역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개인 및 단체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봉사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 및 단체, 전문기관이 지역에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능 나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3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상아회’ 회원들과 함께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웃사촌방에서 다문화 50가정 67명에게 구강검진, 발치, 충치치료,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결혼이주여성 위한 생일케이크 지원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13일 생일을 맞이한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해 케이크 및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고국을 떠나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정서적 소외감을 달래고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생일케이크 지원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생일을 맞이해 케이크를 전해 받은 이주여성 장씨는 “낯선 타국 땅에서 문화적 차이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해바라기봉사단에서 방문해 생일도 축하해주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바라기봉사단 조연자 회장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읍시-전북과학대, 농촌재능나눔축제 열려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가 마련한 ‘농촌재능나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13일 칠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축제에는 황인창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전북과학대학교 8개 학과 재학생과 교직원 봉사대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8개 학과 재학생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함께 시력검사, 뇌졸중 관리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실용한국어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다문화 음식 소개와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가 함께하는 농촌재능나눔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돼 오고 있는 행사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9-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3886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1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봉사 내방

▲ 이연상 부인군 부군수

결혼

▲윤철준(마장교 교사, 우석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교수 윤신종씨, 전주 서곡초교 교사 김은희씨 아들)·김혜수(공치암중 교사, 김춘식씨 권화자씨 딸)양=일시: 22일(토) 낮 12시10분, 장소: 전주타워컨벤션웨딩 1층 미뉴에타호텔, 연락처: 010-8888-1331

군장에너지, 신도시아파트경로당에 환풍기 후드 교체 진행

군장에너지(주)는 13일 소룡동 관내 3개 경로당(명성, 오식도, 진흥아파트)에 에어컨과 김치 냉장고를 기탁하고, 환풍기 고장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아파트경로당에 환풍기 후드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군장에너지(주)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김장 김치, 연탄 및 등유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군장에너지(주) 박준영 대표는 “군장에너지(주)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형석 소룡동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기업과 사회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군산=장현 기자

전북농협-나눔축산운동본부, 복맛이 축산물 정나눔 행사 실시

전북농협(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도지부, 전북지리산낙협은 13일 이환주 남원시장, 심민섭 농협남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덕과면 중앙교회에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나눔축산 복맛이 축산물 정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고생하고 있는 남원시 덕과면, 인월면의 11개 부락 경로당에 600인 분량의 삼계탕을 마련해 전달했고, 특히 덕과면 중앙교회를 빌려 인근 주민들을 초청하여 직접 배식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 전북지리산낙협 이안기 조합장은 “축산과 경종농가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 앞으로 축산부문에서 깨끗하고 냄새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금호엔비텍-금호로지스, 어린이행복학교에 500만원 기탁

13일 (주)금호엔비텍과 (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는 군산시(시장 문동신)와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에서 추진하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운영에 사용해 달라며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지태 대표는 “훌륭한 부모가 행복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군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의 성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군산시와 군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매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등 나눔 실천은 물론 교육지원사업과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도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태 대표는 매년 1천만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가천그립그리기 대회 군산 유치동 민간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군산시 오피리언 리더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기사제보 288-9700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원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원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신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